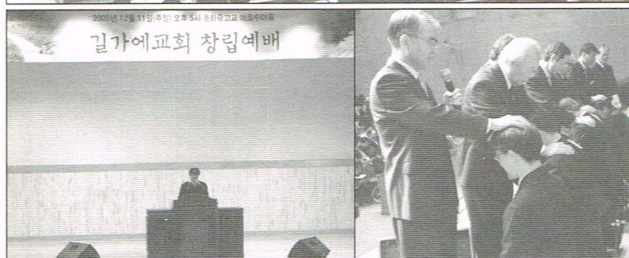


은혜 중에 길가에교회 파송식, 창립예배 드려 뜨겁게 안수후 파송, 길가에교회 창립예배 800여명 성도 함께 참석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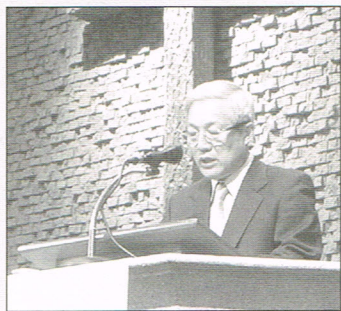


지난 주일 3부 예배때 길가에교회 파송식이 있었다. 주님의교회가 첫번째로 번식하여 파송하는 길가에교회 파송식이었다. 3부 예배때 길가에교회 파송식에서는 길가에교회를 담임하게 되는 이인호 목사 뿐만 아니라 길가에교회를 섬기기 위해 파송되는 30여명의 성도들이 함께 등단하여 목사와 장로의 안수를 뜨겁게 받고 성도들의 간절한 중보기도 속에서 은혜 가운데 파송되었다. 또한 오후 5시 남양주시 동화중고등학교 강당(여호수아홀)에서는 창립예배를 800여명의 성도와 시온 찬

양대의 찬양, 그리고 청년부 위십으로 함께 드렸다. 창립예배 후에는 학교 식당에 준비된 만찬을 함께 나누었다. 길가에교회 집회는 오늘 18일부터 시작되며 주일1부 예배(오전 9시 30분)와 교회학교 모임은 내년 1월 둘째 주(2006년 1월 8일)부터 가지게 된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길가에교회 홈페이지(gilga-e.org)를 참조하거나 교회전화(031-552-2273~4)를 이용하면 된다. 길가에교회 파송식과 창립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해준 모든 성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기/고/문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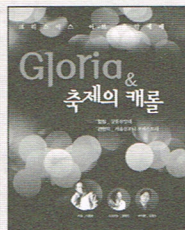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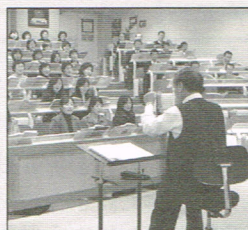
흔히들 사람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깜박깜박 잊어버리는 일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실감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일은 잊어버려서 맘 편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잊어버릴 수 없는 일인데 잊혀지고, 기억에서 희미해져서 아쉬운 일이 있을 겁니다. 특히 자기 생애에 사랑으로 충만하여 열정적으로 보낸 시절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결코 잊고 싶지 않을 거구요. 저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주님의교회의 창립에 참여하면서부터 바로 어제까지 섬겨온 일입니다. 이것은 저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그리고 살아 있는 한 저의 기억에서 희미해지고 싶지 않은 시절입니다. 그것은 소위 선데이 크리스천으로 살던 제가 주님의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주님을 만나 주님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보낸 시간들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기쁨은 이처럼 잊지 못할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영적인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섬기며 나눈 사랑과 위로가 저에게 허락하신 큰 축복이자, 참으로 은혜입니다. (3면에서 계속)

"Gloria & 축제의 캐롤"

이번주 토요일(24일) 19:30,

살롬찬양대 주관 음악예배 드려



올해 성탄절 전야에도 어김없이 우리 교회에서는 음악예배를 드리게 된다. 올해는 3부 살롬찬양대가 주관하고 서울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협연하게 되며, 연주될 작품은 칸타타 'Gloria'와 '축제의 캐롤'이다. 특별한 점은 칸타타 'Gloria' 10개 악장 전 곡을 라틴어로 부르게 된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 살롬찬양대는 지난 8월부터 이번 성탄절 전야 음악예배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준비해 왔다. 칸타타 Gloria는, 3부 살롬찬양대 지휘자이며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작곡 및 합창지휘 전공 교수로 재직중인 이동훈집사가 10개의 악장으로 나누어 직접 작곡한 작품이다. 이 곡은

1999년에 안산시립합창단에 의해 예술의전당에서 초연되었고, 기독교방송 등에서 방송되어 오고 있다. 이번 음악예배 준비과정에서 살롬찬양대원들은 한국어로 번역하여 부르기도는 Latin어 그대로 합창하기를 원했으며, 그 결과 더욱 많은 연습시간이 필요하였다. 음악예배의 두번째 순서는 Mallote 작곡의 '주기도'를 바리톤 독창으로 드리게 되며, 세번째 순서는 '축제의 캐롤'로서 성탄절의 기쁨을 교인들과 함께 나누게 된다. '축제의 캐롤'은, 찬송가에 있는 성탄 찬송과 일반 캐롤을 모아 성명 미상의 편곡자가 편곡한 원곡을 이동훈 지휘자가 이번 음악예배를 위해 합창과 관현악으로 다시 편곡한 곡이다. 이번주 토요일인 12/24 pm 7:30에 대예배실에서 열리게 될 이번 음악예배에는 주변의 안 믿는 가족, 친구들도 함께 초청하여 이들에게 성탄의 참된 의미를 전달해 주는 기회로 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은 물론 교회와 예배에 낮은 이웃들이 함께, 'Gloria'를 통해 주님께 영광드리며, '축제의 캐롤'을 통해 주님오심을 같이 기뻐하고 즐기는 뜻깊은 성탄절 전야가 되길 기대해 본다.

크리스마스 교회학교 발표회

이번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대예배실에서 있어



오는 21일 수요일 저녁 예배는 19시30분에 대예배실에서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준비한 크리스마스 발표회로 갖는다.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기뻐하는 이 시간에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뻐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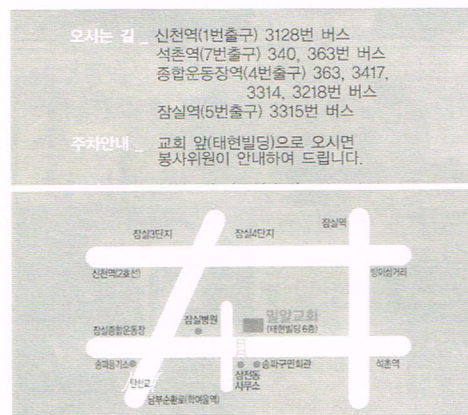
이 날 행사는 전체 1-2부로 준비되는데, 1부는 먼저 유아부 아이들의 귀여운 인사를 시작으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과 말씀, 그리고 유치부의 노래극, 유년부의 수화찬양, 초등부의 찬양과 함께 신나는 율동과 소년부의 찬양 위주로 이어지며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박진감 넘치는 워십댄스가 준비될 예정이다.

이 날 행사를 위해 각급 교회학교는 이미 한 달 전부터 열심히 각 부서별로 최선을 다해 준비해왔다. 또한 2부 순서로는 특별히 찬양가 수인 지영의 작은 콘서트 마지막 시간으로 준비되어 다함께 찬양하는 시간으로 끝나칠 예정이다.

교회학교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정성껏 준비한 아름다운 시간에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참석한 성도 모두에게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한다.

김성관 목사 담임목사 부임 감사예배 오늘 3시에 드려

지난 3년간 우리교회에서 부목사로 시무했던 김성관 목사가 오늘(18일) 오후 3시 송파구 삼전동 태현빌딩 6층에 위치한 밀알교회(강동노회 소속) 담임목사로 부임하게 되어 부임감사예배를 드리게 된다. 오늘 부임감사 예배때 설교는 문동학 주님의교회 담임목사가 담당하게 된다. 밀알교회 위치는 오른쪽 약도를 참조하면 된다.



함글함글 문예지 발간 예정

매주일 나오는 함글함글에 다 신지 못하는 성도들의 간증, 수필, 시 등을 모아 함글함글 문예지 별책을 만들려 합니다.

글을 내 주실 성도는 4층 교역자실 간사에게 교구구역과 이름, 연락처와 원고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원고는 E-MAIL로 주시면 편집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예지 발간은 글이 모이는 대로 내년 1월경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선교지에서 보내온 편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이곳은 습기가 많고 난방을 할 수 없는 지역이라 집안과 밖의 기온이 거의 비슷합니다. 해가 한 번이라도 나면 따뜻한 햇볕을 쬔다 밖으로 나갑니다. 라싸에 있을 때는 구름보기가 어렵더니 여기는 하늘

이 늘 구름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날씨에 적응되어가는 저희를 보면서 건강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장기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사 32:4)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나가길 원합니다. S도시와 T도시에 알맞은 프로젝트가 준비되고, 같이 일할 사람들, 재정, 때에 맞게 도울 자들을 붙여주시도록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심정, 그 심정을 조금 알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막막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삶의 터전이 S도시와 T도시라는 것에는 보이지 않은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함께 중보 기도하는 그 힘이 우리를 가르칠 것을 기대합니다. 주의 심장을 가지고 주께서 주신 생명의 씨앗을 B국에 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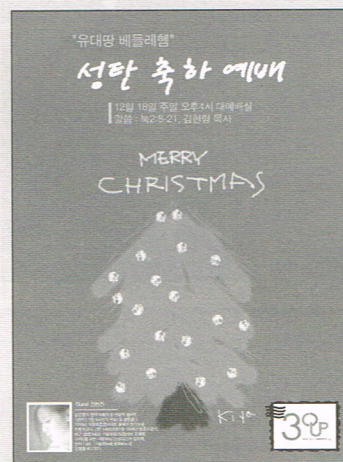
교회와 예배에 낮은 이웃을 위한 전도 예배 [오늘]



오늘 4부 예배는 성탄 축하 음악예배로 드러진다. 지난 5월 4부예배의 시작과 함께 사역해온 연주팀이 2005년 성탄을 위해 준비한 음악예배이다. 예배는 연주팀의 연주와 이종익 형제(MD), 장근희, 강정아자매의 노래로 아름답게 드러지게 될 것이다. 특별히 주님의교회 소년부 어린이, 이소민과 강이슬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

- Merry Christmas!! - 오늘 연주팀
- 선물 (이종익 사,곡) - 이소민, 강이슬
-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 김정아
- "동방박사의 선물" (마태복음 2:9-11) - 김현령목사
- The Christmas Song - 장근희
- 그 맑고 환한 밤중에 - 장근희 & 김정아
- 내 마음의 크리스마스(이영관 사,곡) - 장근희 & 이종익
- White Christmas & Silver Bell - 다같이

30CUP WORSHIP SERVICE



올해의 마지막 30CUP 예배가 성탄축하예배로 드러진다.

오늘 4시 대예배실에서 이종익형제의 찬양인도와 김현령목사의 설교로 진행되며 특별히 CCM 아티스트 신현진씨가 초대되어 성탄 축하의 음악을 전하게 된다.

신현진씨는 지금 출산을 앞둔 산모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더욱 간절히 전하게 될 것이다.

심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캠퍼스 안에서 세 자녀로 인해(지선, 한택, 준택)교제하기 시작한 B국 친구들을 12월 24일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며 예수그리스도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골 4:3-4절 약속의 말씀으로 예수그리스도가 B국 친구들에게 전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며, 이들 안에 있는 자기가 믿은 종교의 영이 죽고 아버지의 영으로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속 교제권이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첫째 아이가 내년에 유치원 생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래 집단에서 언어와 다른 생활 습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005년 한 해를 감사드리며, 2006년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합니다.

* 선교보완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시므로 국가명과 도시명을 임의로 사용했음을 밝힙니다.

양육과정 '찬양과 경배로 승리하는 삶' 종강해



이번 하반기 동안 윤은성 목사와 함께 진행되었던 '찬양과 경배로 승리하는 삶' 양육 클래스가 지난 주 목요일에 종강하였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들과 새로운 찬양들을 배우는 시간들도 가졌다. 찬양 한국 한국을 관련된 말씀과 함께 묵상하며 찬양과 경배 곡들의 진정한 성경적 의미들을 파악하여 더 깊은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며 돕는 시간

이었다. 참여한 성도들은 함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때론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며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회복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들을 가졌다. 함께 섬기며 찬양을 인도하며 말씀을 나누는 윤은성 목사가 매주 함께 드린 찬양들을 모아 편집하여 세장의 찬양CD를 제작하여 성도들이 가정에서나 차안에서도 함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 것도 큰 도움과 은혜가 되었다.

날마다의 삶속에서 부딪히게 되는 인생의 고비와 고통의 현장들과 기쁨과 감사의 순간들을 마냥 좌절하거나 또는 그냥 지나쳐 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신뢰의 고백을 찬양과 경배로 드릴 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믿는 확신 가운데 마무리 된 양육 클래스였다. 한 학기 동안 넘치는 찬양과 경배의 은혜로 회복시켜주시고 영육을 새롭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



홀려져 복음을 전하는 일꾼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귀시는 꿈은 우리도 함께 하옵소서.

2009
12.18

(1면에 이어서)

기/고/문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의교회가 소원하고, 기도한 번식교회의 제안이 들어온 사실입니다. 사실 번식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림조차 그려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시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일을 놓고 번식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전을 주셨습니다. 저는 다른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제 속에서 '다른 사람만 보내느냐 그러면 너는!' 이라는 물음이 메아리쳤습니다. 그때 저는 마치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평소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떠나라”(창12:1). “내가 뱀그라운드가 되어 주겠다”(창17:1). 그 말씀을 받고 저는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나의 뱀은 하나님이지. 순종하자고 말입니다. 저는 지

난 주 파송식과 창립예배를 드리며, 처음 주님의교회를 시작하던 그 설레임과 흥분을 다

느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분명히 잘 될 것이고, 또 이렇게 제 생애에 하나님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 역사하심에 동참하게 되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제 생애 최고의 명예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는 현장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쪼록 번식하는 길가에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보고, 누리고, 전염시키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무엇을 하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에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저의 뱀그라운드가 되어 주시겠다고 한결 같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기뻐하며 다시 반갑게 만나 뵙기를 기도합니다.

『길가에교회』에서 양동훈

양육과정 '제자의 삶', 양화진 탐방 기행



무척이나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면서도 소복히 쌓인 하얀 눈 속에 파묻힌 비문 위에 조그만 글이 양화진을 방문한 '제자의 삶' 수강생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고, 섬김을 받으러 오

신 것이 아니라 섬기시기 위해 오셨습니까?”라는 비문을 보면서 마음의 큰 감동을 받았다.

열매 맺는 삶을 위한 '제자의 삶' 양육 클래스(강사: 정영환 목사)가 그 동안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의 변화와 영적 성장을 위한 아름다운 과정을 마치면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를 방문하게 되었다. 이 땅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안고 들어와 주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고 지난날 깨어있지 아니한 우리나라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던 선교사들이 누워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분위기는 매우 엄숙했다.

'제자의 삶' 모든 과정을 마치면서 하얀 눈 위에서 목사님께 드리는 사랑의 편지 전달식에서 보여준 아름다운 모습과 손에 손을 잡고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새삼 깊이 느끼게 되었다.

양육과정 영어성경 공부 종강해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모여 사도행전(Acts) 영어 성경을 공부하던 클래스가 종강했다. 영어예배를 섬기고 있는 나현수 전도사의 인도로 한 학기를 알차게 보냈다. NIV 영어성경을 교재로 사도행전의 귀한 말씀 한 절 한 절

을 읽고 토론도 해가며 영어로 기도문도 직접 작성해보고 직접 기도도 해보며 영어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처음에는 영어 기도문 작성과 기도가 매우 어렵게 생각되기도 했지만 자주 접하면서 기도문 작성과 발표도 하게 되고 서로 친목도 다지는 좋은 시간들이 이어졌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는데 삶의 우선순위를 두기로 정하게 되었고, 이번 양육 클래스를 통해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서로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과 주일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만나 대화하는 거룩한 습관을 갖게 되었다. 이번 양육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에 누구를 보내셨나?(Who has God placed near me?), 나를 어디에 두셨는가?(Where God placed me?)를 다시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청년 공동체

크리스마스 특별모임

12월 24일 오후 4시부터 청년공동체에서 주님의교회 청년들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파티가 준비된다. 화려함보다는 성탄의 기쁨을 함께하는 의미에서의 파티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공동체

에서는 청년부에 아직 잘 적응하지 못하는 청년들이나 아직 청년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을 이 시간에 초청한다. 저녁 식사와 함께 크리스마스이브를 공동체의 새로운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에 많은 청년들을 초청한다.

5여선교회 월례회

2005년을 마무리하는 5여선교회 마지막 12월 월례회가 지난 14일 청년부실에서 있었다. 그 동안 5여선교회는 매달 한번씩 지체 부자유자들의 쉼터인 '살롬의 집'을 방문하여 함께 봉사하고, 월례회 때마다 만나서 중보기도로써 사랑을 실천해왔다. 이날 모인 회원들은 하나님께서 한해동안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시며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셨음을 감사하고 기쁘게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수 1:9,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시 37:5-6.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르고 네 의를 빗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빗같이 하시리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내년 2006년에 5여선교회를 섬길 회장으로 이형숙 집사를 선출했다. 내년에도 5여선교회 회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사랑을 실천하고 주안에서 기쁨을 나누는 시간들을 많이 갖기를 기도하며 기대한다.

통합 아동부 레인보우

이제 성탄절이 한주 앞으로 다가왔다. 2005년도 성탄절은 주일과 겹치며 올해 마지막 주일이 되기까지 하다. 때문에 12월 25일 예배는 성탄예배와 함께 시상식, 진급예배로 드려야 한다. 이에 우리교회에서 싹트네와 함께 유일한 통합부서(초1-6학년)인 레인보우는 성탄예배를 새로 결성된 레인보우 찬양팀과 함께 찬양예배로 드리게 된다. 그 동안의 레인보우의 예배가 신나게 뛰면서 찬양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교제를 뜨겁게 느끼고 체험하는 예배

였다면 이번 성탄예배는 촛불을 이용한 차분한 분위기와 함께 캐롤과 영상, 서로의 마음을 담은 카드 나누기, 성탄과 관련된 말씀 그리고 중등부로 올라가는 6학년 학생들에 대한 진급예배로 드러질 예정이다. 무엇보다 이번 성탄예배의 주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한 것이기에 이 의미를 다시 한 번 아이들 마음속에 새겨주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2년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새롭게 3년의 역사를 시작할 레인보우는 그 동안 좋은 발전이 있었다.

통합아동부라는 이름으로 3-4명의 아이들로부터 시작된 레인보우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교사들의 헌신적인 열정으로 아이들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이 성장했으며 15명의 졸업생들을 아쉽지만 또한 기쁨마음으로 중등부로 이번에 올려 보내게 된다.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도 많지만 끊임없이 기도하고 열정의 끈을 놓지 않는 교사들과 특별히 레인보우 담당 교역자인 우병선 전도사의 열정과 헌신의 수고를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계시기에 기쁨 마음으로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레인보우 교사들은 주님을 높이 찬양하고 있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청소년찬양축제



하나님을 향한 청소년들의 열정과 뜨거움이 있는 예배, 청소년찬양축제가 올해의 마지막 집회를 지난 토요일(10일), 1층 소예배실에서 가졌다. 시험기간이라 많지 않은 청소년들이 모였지만 찬양과 기도로 소강당을 가득 메운 예배였다. 찬양 후 고등부의 유성훈전도사가 말씀인도를 했다. 흥년을 통해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듯,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 주께 감동 받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삼으신다.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하나님께

서 날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고, 날 쓰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접적인 표현이다.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짓게 되는 죄의 덩미가 있다면 있는 힘을 다해 회개를 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 주의 계획안에 편승하면 지금과는 달리 놀랍게 쓰임을 받는 체험을 할 것이다. 우리의 삶은 주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가로막지 못한다. 하나님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계획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청소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뜻에 민감한 사람이 되고, 주의 말씀 안에 나의 고집을 내려놓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다 같이 기도를 드렸다. 올해 봄부터 시작하여 매 주 토요일, 저녁 6시마다 열린 청소년찬양축제는 우리교회의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도 함께 참여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제 내년에 다시 시작하게 될 청소년찬양축제를 위해 청소년들과 학부모들과 성도들의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0대가 아니어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30CUP WORSHIP SERVICE



성도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매월 3째 주 오후 4시 대 예배실에서 30CUP 찬양예배가 드려진다. 이 예배는 30CUP 사역팀이 30대를 겨냥하여 준비하는 예배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다른 세대가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다른 세대의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은혜를 나누고 있다. 찬양과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예배는 모든

시간이다. "저는 30대가 아니어서..." 말씀하며 참여를 망설이는 모든 성도들을 초대한다. 특별히 오늘 드려지는 예배는 성탄 축하예배로 CCM아티스트 신현진씨가 초대된다. 특별히 신현진씨는 출산일을 앞둔 산모로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더욱 간절히 마음으로 노래하게 될 것이다.

12월 25일 "오늘" 4부 예배 오후 2시, 살롬찬양대 성탄감사예배로 드려

오는 성탄절날(25일) 4부 예배는 3부 담당인 살롬찬양대를 초청하여 성탄 음악회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 예배와 교회가 낯선 이웃들을 위하여 특별히 준비한 박태준의 '동무생각', 윤용하의

'보리밭'과 같은 가곡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징글벨', '성탄장식' 등의 크리스마스 캐롤과 폴루티스트 박성민 박사와 이운영 박사의 이중주와 피아노 독주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줄

예정이다. 살롬찬양대는 24일에도 3부 지휘자인 이동훈 집사의 곡인 '글로리아'로 칸타타를 하는데, 연이어 25일에도 4부 예배를 통하여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특별히 아기 예수 탄생을 맞이해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않은 이웃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드리기를 당부한다.

초등부, 성탄절 준비 한창

초등부는 지난주에 아주 멋진 크리스마스트리를 세우고 예쁘게 장식했다. 이번 주에는 성탄절 카드 쓰기 시간이 있고, 초등부 친구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쓴 카드는 크리스마스트리에 멋지게 달 예정이다. 이번 초등부 성탄절 예배의 주제는 '감사'와 '축하'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성령님께 감사를 드리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는 예배로 드러지게 된다. 이를 위해 항상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과 울동을 드리는 '작은 제자'와 '무지개 찬양대'의 성탄절 축하 공연이 아기 예수님을 위해 펼쳐질 계획이다. 또한 이번 성탄절 예배는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로 드러진다. 이번 성탄절은 올해의 마지막 주로서 성탄절 예배 후에 진급

식이 진행되며, 이 자리에 학부모들을 초청하여 "그리스도에 게까지 자라가는 초등부"라는 주제로 활동했던 초등부 친구들의 지난 1년 동안의 모습을 소개하고 부모와 교사, 학생이 더불어서 진급의 기쁨을 나누고자 한다. 성탄절을 끝으로 이제 4학년이 되는 친구들과 소년부로 올라가는 초등부 친구들에게 1년 동안 초등부 활동이 담긴 추억의 앨범을 CD로 제작하여 나누어줄 예정이며, 소정의 선물 또한 지급할 예정이다.